

‘상처’와 ‘가면’에 대한 탁월한 통찰

전 세계 720만 독자가 선택한 심리 필독서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

리즈부르보 저, 1만 7000원, 앵글북스.

“사람들은 반창고가 상처를 가리듯 가면을 쓰면 상처받지 않은 척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여전히 상처는 아프고, 당신 안에 고스란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 모든 상처는 다친 손가락과 같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배신당하며 심한 모욕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린다고 느낀다. 그때마다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아가 ‘그 사람이 나쁘다’고 탓하고 싶어 하는 것일 뿐이다.” (36~37쪽)

책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는 영혼에 새겨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상흔을 치유하는 법을 담았다.

저자 리즈 부르보는 42년간 수백만 명의 환자를 상담해 온 프랑스 최고의 심리 상담가로 꼽힌다. 이 책은 출간 도서 누적 판매 부수 총 720만 부, 프랑스 아마존 심리 분야 10년 연속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세계 18개국에서 출간, 총 228만 부 이상 판매되며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책은 영혼을 뒤흔드는 결정적 ‘상처’와 ‘가면’을 크게 5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환자를 치유한 경험을 토대로 유형별 습관이나 말버릇·태도는 물론 체형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근본적인 상처는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치유하는지 세심하게 알려준다.

“‘이존하는 사람’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끈덕지게 매달렸다가 사람들이 정떨어졌다며 떠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가끔 ‘이존하는 사람’이 참고 견디는 상황들을 보면 이들이 고통을 즐기는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인 남편의 술주정에 시달리거나 심각한 가정폭력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비참한 결혼 생활을 견디는 편이 남편과 헤어지는 것보다 덜 고통스러운 일이다.”(82쪽)

컬러와 패션으로 세상과 교감하다

10가지 컬러와 패션이 들려주는 화려한 이야기



패션, 색을 입다

롤라인 영 저, 1만 9800원, 리드리드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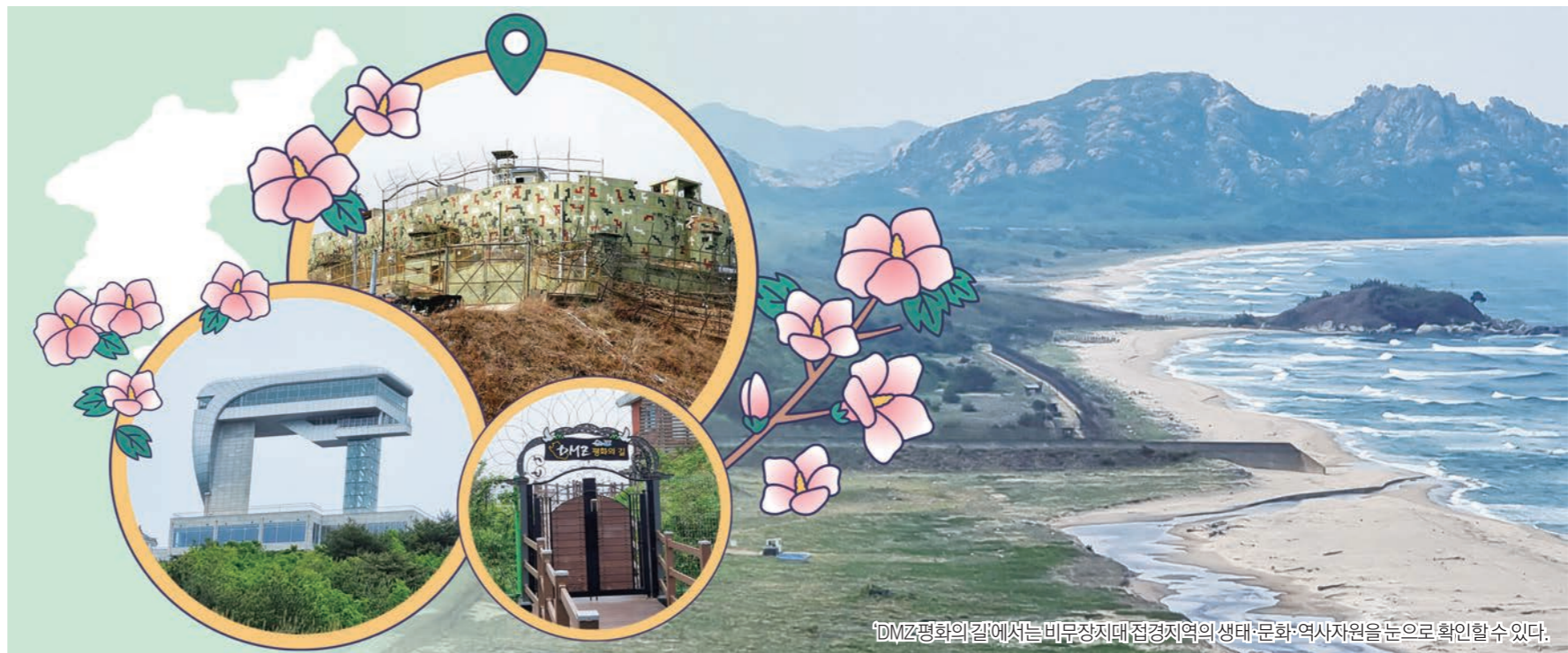
이 책은 세계 역사 속의 문화 아이콘과 패션을 10가지 색으로 엮어 매력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컬러는 국가별시대별로도 그 의미에 차이가 있으며 패션 업계에서는 컬러가 그 브랜드를 대표하기도 한다.

또한 모든 색은 인간의 감정에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각각의 색이 지닌 고유한 분위기는 인간에게 고유하고도 특별한 감흥을 일으킨다. 느긋한 옐로우·로맨틱한 핑크·우울감을 주는 다크블루·질투심으로 가득한 그린 등등 다채로운 색상은 수많은 문화작품과 노래 가사가 쏟아질 정도로 우리의 감정과 얽혀 있다.

이 책은 패션에서 컬러가 가진 중요성과 세월이 흐르면서 그 상징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구한다. 블랙이 애도와 추모의 색에서 어떻게 궁극의 우아함을 나타내는 색으로 바뀌었는지, 밀레니얼 핑크가 어떻게 인스타그램 세대를 대표하는 색이 됐는지, 한때는 고급 취향을 나타내던 샤넬의 베이지가 이제는 늬코어라는 서브컬처를 상징하게 된 이유를 흥미롭게 설명한다. 색과 패션으로 버무려진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이 펼쳐진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컬러 감각이 요구되는 시대다. 이 책은 색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기본서가 될 것이다.



DMZ 평화의 길에서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끊긴 산하... 하나 뒬을 소망하다

DMZ 평화의 길 고성A 코스를 걸어보니...

고성 통일전망대~금강산 전망대 2km 4월부터 답사 재개 북녘으로 펼쳐진 비경... 길 있지만 갈 수 없는 현실에 착잡

한국관광공사의 히트작 ‘두루누비 평화의 길 고성A 코스’를 걸었다. 2018년 시작된 평화의 길은 코로나19-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로 한동안 운영이 중단됐었다. 2022년 다시 재개되기는 했지만 운영 기간이 불과 53일밖에 되지 않았다.

울 초문화체육부는 4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휴사기를 제외하고 이전 코스 그대로 DMZ 평화의 길을 다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소식을 듣고 두루누비 홈페이지를 찾았을 때는 애초의 발표와 달리 고성 코스가 대폭 축소된 상태였다. 적잖이 고민했지만 결국 신청서를 접수했다.

외국인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한국 여행지 1위

‘평화의 길’이 민간에 개방된 것은 정전협정 65년 만인 2018년의 일이다.

‘DMZ 평화의 길’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평화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 ‘외국인이 꼭 가보고 싶은 한국 여행지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강화·김포·고양·과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10개 접경 지역 가운데 동부 전선인 고성 코스는 남방 한계선 너머 금강산 전망대까지 접근이 가능하므로 그 인기가 타(他) 지역을 압도했다.

고성A 코스 정구 루트는 고성 통일전망대 → 해안 전망대 → 통진터널 → 남방한계선 → 송도전망대 → 금강동문 → (도보 구간 2.7km) → 금강산 전망대로 이어지며,

고성B 코스는 차량을 이용해 통일 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이동하게 된다.

717OP의 새 이름 ‘금강산 전망대’

특히 금강산 전망대(717 관측소)는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2km 더 들어간 지점에 있어 금강산 구선봉과 옥녀봉을 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록문화재인 고성GP와 북한이 운영하는 북한 전망대(351고지)도 육안으로 볼 수 있다.

351 고지는 6·25전쟁 때 북한과 남한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32번이나 주인이 바뀐 곳이다. 이곳에서 희생된 목숨만 2만 명이 넘는다. 원래는 356m 지점에 있어 ‘356 고지’였으나 어쩌나 포격전이 극렬했는지 산정이 5m나 깎여 351고지가 되었다.

출입신고서 작성, 군부대 검문 통과

평화의 길은 그 이름이 지닌 무게만큼이나 출발부터 녹록지 않다. 통일안보공원에서 출입 신고를 마친 뒤 제진검문소에서 군부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고성통일전망대 출입이 허락된다.

그동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 최북단 지대는 고성통일전망대였다. 그러나

이제는 ‘DMZ 평화의 길’ 출구를 통해 해안 따라 비무장지대를 걷는 게 가능해졌다. 고성통일전망대로부터 1612m나 더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만도 사실 대단하다.

평화의 길 트래킹에는 군인 2명과 해설사 2명이 동반한다. 해설사는 출발 전 절대 철책을 건드리지 말 것을 신신당부한다. 과거에는 군인이 24시간 보초를 설치만 요즘에는 센서가 대신 보초를 선다. 철책을 건드리는 즉시 군병력이 출동하면서 투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길은 있지만 갈 수 없다! 동해북부선, 금강산육로

해안전망대를 지나면 통진터널을 관통하는 동해북부선 철길을 만나게 된다. 동해북부선은 양양에서 원산에 이르는 192km 거리를 한 줄로 잇는 철도다. 6·25전쟁 때 파손된 것을 남북이 협의해 2007년 제진역에서 북한 금강산 청년역까지 25.5km를 복원해 시험 운행했다.

동해북부선 복구사업은 한반도를 넘어 유럽까지 기차로 내달릴 수 있다는 큰 희망을 안겨 주었지만 이듬해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없던 일이 되었다.

철길 옆으로 7번 국도의 영장인 ‘금강산 육로’가 나타난다. 한때 저 도로를 따라 200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이 금강산 유람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길은 한적하고 쓸쓸하다.

과도는 무심하게 철썩이는데 무엇이 압도된 것일까. 바짝 앞드린 해당화가 조심조심 붉은빛을 토해 낸다. 탐방객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남한 최북단 교량인 송현1교·송현2교를 지난다. 다리 밑으로 전차의 진입을 막는 육중한 철문이 내려져 있다. 큰비가 내릴 때만 홍수에 대비해 문을 개방한다고 한다.

마음으로 그려 보는 북방한계선

평화의 길 탐방은 통일전망대로부터 1612m 더 들어간 ‘남방한계선’에서 끝이 났다. 바로 앞 ‘송도전망대’까지만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 동해로 비죽이 튀어나온 해강강도, 말머리 반도도, 바다 위에 점점이 뿌려진 섬도 잘릴 듯했지만 갈 수 없었다.

금강산 가장 동쪽 봉우리 구선봉(낙타봉) 기슭에 있다는 북방한계선과 그 아래 선녀와 나뭇꾼의 전설이 깃든 호수 ‘감호’는 상상으로도 그려 볼 뿐이다.

고성A 코스는 회차별 정원이 20명이다. 화·수·금·토·일요일에만 하루 2회(오전 10시 이후 2시) 운영한다. 참가비는 1만 원이지만 투어가 끝난 후 기념품을 증정하므로 돈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고성·임유기 기자 lye@skyedaily.com

존 스토셀이 말하는 117가지 일반적인 생각 vs 현실의 가르침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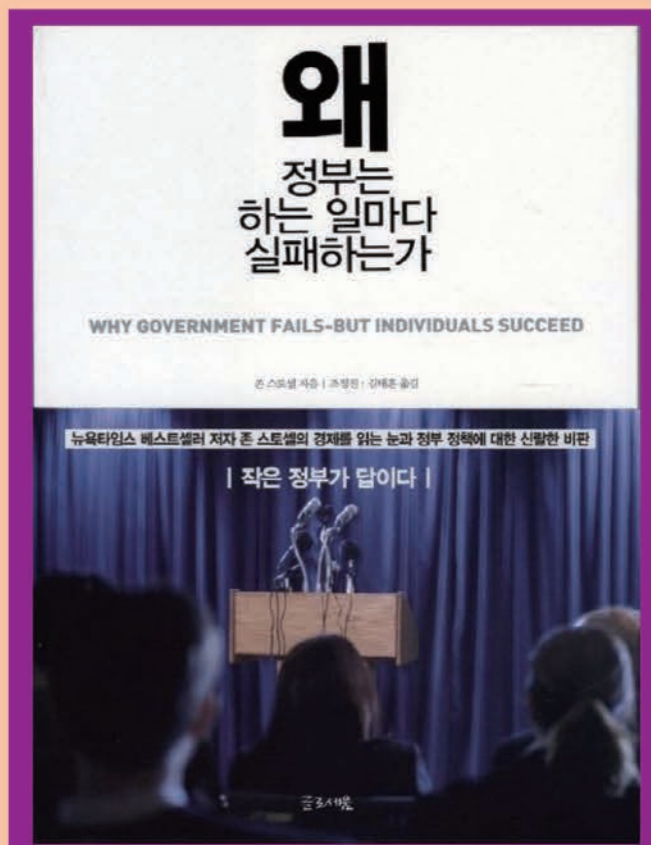
작은 정부가 답이다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또 하나의 고전!

정부 정책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하는 책!

정부는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정책이 최선책이라고 믿어버리는 직관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 · 김태훈 번역

글로벌세움